

# 우리나라 해양지명 표준화에 관한 연구

## - 해양지명 명명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Standardization of Marine Geographical Names in Korea

임 영 태\*      최 윤 수\*\*      윤 하 수\*\*\*  
 Young Tae Lim      Yun Soo Choi      Ha Su Yoon

**요약**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이름 즉 지명이 있다. 바다 속 작은 바위에도 이름이 있다. 이를 해양지명이라 한다. 해양지명은 고유지명과 속성지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서론에서 언급한 해협, 만, 포 및 암(岩), 초(礁), 퇴(堆) 등은 해양지명의 속성지명이다. 속성지명의 경우 이름을 붙이는 데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많은 항해장애물인 암(岩), 초(礁), 퇴(堆)에 어떻게 이름을 명명하고 있는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해양지명에 관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과거 해양지명의 속성분류와 현재의 속성 분류를 비교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간행한 항해용해도에 사용되는 해양지명과 해양지명위원회에서 고시한 해양지명에 대해 조사·분석을 통하여 향후 해양지명의 표준화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해양지명, 속성분류, 암(岩), 초(礁), 퇴(堆), 표준화방안

**Abstract** All of area we live in has its own geographic names. Even small size of rock under the water has its own name. They are called "marine geographic names". Marine geographic names can be classified two categories. One is a proper name; the other is an attribute name. Rocks, reefs and banks referred in the introduction, belong to the category of the attribute name. And there are certain standards to name marine geographic things.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case research with the aims to figure out how we name and use those three features that we consider dangerous factors for marine navigation. This study also focused on differences between the methods used to classify attributes of marine geographic names in the past and today. In addition, it reviewed and analyzed marine geographic names used by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KHOA) on its own Nautical charts and conducted a case research on marine geographic names notified by Korean Committee on Marine Geographic Names. Based on research and analysis, this study presents future methods regarding marine geographic names standardization.

**Keywords** : Marine Geographic Names, Classification Attributes, Rocks, Reefs, Banks, Marine Geographic Names Standardization

## 1. 서론

해양지명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해상지명과 해수면 아래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해저지명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해양지명의 가장 큰 특성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는 점이다.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해

상지명이라 하여도 그 범위를 알 수 없는 대양(大洋)에서 부터 어항(漁港)과 포(浦)처럼 작은 것도 있다.

해양지명 중 해저지명은 3차원으로 표현하는 해양조사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중빔 음향측심기<sup>1)</sup> 등으로 해저지형을 조사하여, 과학적인 근거로 해저지형을 해저계곡, 해저산, 해저산맥 등으로 세분하기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박사수료 lims5787@krpost.net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교수 choiys@uos.ac.kr(교신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박사수료 hasu9@uos.ac.kr

1) 다중빔 음향측심기 (Multi-Beam Echo Sounder) : 배가 이동하면서 다중 음향신호를 발사하고, 이를 다시 수신함으로써 송·수파 가능 범위의 해저 횡단면 전체를 동시에 측정하는 측심기를 말한다. 해저 지형도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된다.

시작하였다.

측량기술과 전산처리 과학의 발달에 따라 해저의 형상이 밝혀지고 있지만 인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안 해역에서 해양의 정의는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전해오는 풍습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즉 과학적 프로세스에 의한 정의와 문화적인 연속성을 갖는 정의가 해양지명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지명 표준화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속성지명의 정의를 표준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해양지명은 고유지명과 속성지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고유지명이란 같은 종류의 개체를 다른 부류와 구별하기위한 명칭이며, 속성이란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 속성지명은 사물이 지니고 있는 형상과 지형지물의 존재위치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명명한다.

예를 들어 동해안 후포에서 동쪽으로 23km 떨어진곳에 있는 “왕돌초”는 “왕돌”이라는 고유지명과 “초”라는 속성지명을 붙혀 “왕돌초”라는 해저지명으로 명명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해도에 사용되고 있는, 해양지명과(표 5 참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해양지명위원회에서 명명하고, 고시한 해양지명에 대한 사례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해양지명의 속성이 올바르게 해석되었는지, 적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용어 해석을 잘못하여 발생한 사례 등을 토대로 해양지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해양지명의 표준화에 관한 방안을 찾아보는데 있다.

아울러 해양지명에 관한 선행연구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연구 자료의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간행한 항해용해도와 수로지<sup>2)</sup>, 2004년 해양지명위원회에서 간행한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 및 고시한 해양지명, 일본해군성수로부가 간행한 조선수로지<sup>3)</sup> 등 항해와 관련된 해양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2. 해양지명의 정의

“해양지명”이라는 용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없다. 다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7항에서 “‘해양지명’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해협·만(灣)·포(浦)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礁)·퇴(堆)·해저협곡·해저분지·해저산·해저산맥·해령(海嶺)·해구(海溝) 등 해저지형의 이름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다.

2004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한 해양지명표준화 편람은 해양지명을 해상지명(sea surface names)과 해저지명(undersea features names)으로 구분하였고 해상지명은 항상 수면위에 보이는 부분으로 해양, 해협, 만, 포, 수로 등이 해당되며 해저지명은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초, 퇴, 해저협곡 등 물속의 지형에 관한 이름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양·해협·만(灣)·포(浦) 및 수로, 초(礁)·퇴(堆)·해저협곡·해저산·해저산맥·해령(海嶺)·해구(海溝) 등이 해양지명의 속성지명이다. 해저지명의 형상과 지형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제수로기구산하 IHO-IOC(IHO-IOC : IHO 국제수로기구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OC 정부간 해양학위원회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에서 간행한 해저지명의 표준화 지침서인 해저지형관련서지에서, 해저지명의 용어와 정의를 과학적인 분석과 함께 예를 들어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지명보다는 체계적으로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지명은 항상 수면위에 보이는 부분으로 해양, 해협, 만, 포, 수로 등이 해당된다고 분류하여 놓았지만, 아직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 3. 우리나라 해양지명의 속성분류

우리나라 해양지명위원회에서 간행한 해양지명표준화 편람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양지명의 속성에 대하여 근원과 분류체계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시대별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해양지명의 속성은 조선수로지에 근간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 연안의 수심, 위험물 등을 조사하여 최초로 간행한 수로지는 1886년(明治 19년) 간행한 『환영수로지』이며 이후 여러 번의 수정 보완을 거쳐 우리나라 전연안의 항

2) 수로지(Sailing Direction) : 항해를 위한 바다의 항로 안내지로서 해양의 현상, 연안 및 항만의 지형, 시설 등 해도에 표기되지 않은 여러 사항을 상세하게 수록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이 간행한 서적이다.

3) 조선수로지 : 일본해군성수로부가 우리나라 전연안의 항과 포구의 수심, 항해위험물, 등대 및 조류, 해류, 기상 등 거의 모든 해양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1886년부터 간행하기 시작하였음.

과 포구의 수심과 항해위험물, 등대 및 조류, 해류, 기상 등 거의 모든 해양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1907년(명치 40년) 조선수로지와 1920년(대정 9년) 일본수로지 제10권 상편 중 조선편으로 “조선 동안에서 남안”과 “조선 서안편”으로 나누어 2권으로 간행되었다.

이 수로지에서 분류한 해양지명의 속성에 관한 원전은 영국 해군성 수로부가 간행한 CHINA PILOT에 근거하고 있다. 이때 분류한 해양지명의 속성은 주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해안가 지형에 대한 것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양지명의 속성에 관한 분류는 이들 『조선연안수로지』에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표 1>의 Ocean, Sea는 양(洋)으로 이 중으로 분류하였고, Sea는 해(海)로, 현재는 분지의

표 1. 조선연안 수로지의 해상지명 속성 분류표(大正 9년)

한글 표기	한문 표기	영어 표기	비고
양	洋	Ocean, Sea	
해	海	Sea	
해만	海灣	Gulf	
항	港	Harbour Port, Haven	
만 또는 포	灣 또는 浦	Bay, Cove Sound, Creek, Inlet	
만안, 개만	灣岸, 開灣	Bight	
내만	內灣	Basin	
직로	直路	Reach	
묘지, 묘장	錨地, 錨場	Anchorage, Berth	
해협	海峽	Strait, Sound	
수도	水道	Channel	
운하	運河	Canal	
항로	航路	Route, Passage	
도	島	Island	
반도	半島	Peninsula	
서	嶼	Islet	
갑	岬	Cape	
각	角	Point	
사취	沙嘴	Spit	
애, 협애	崖, 險崖		

출처 : 朝鮮沿岸 水路誌(大正 9년 日本 水路部)

뜻으로 쓰이고 있는 Basin은 내만(內灣)으로 분류하였다. 해저지형에 관한 것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초(礁), 암(岩), 세암(洗岩), 수상암(水上岩)등으로 세분하여 분류하였다.

1920년 당시의 항해술 및 해양조사능력에 따라 해저지형에 관한 분류는 연안지형에 국한되어 있다 (표 1과 표 2 참조).

표 2. 조선연안 수로지의 해저지명 속성 분류표(1920년)

구분	한글 표기	한문 표기	영어 표기
1	초, 퇴, 초맥	礁, 瀨, 礁脈	Reef
2	암	岩	Rock
3	세암	洗岩	Rockawash
4	침암, 암암	沈岩, 暗岩	Sunken rock
5	협초, 암협암	險礁, 暗險岩	Dangers Dangerous rock
6	수상암, 로암	水上岩, 露岩	High water rovk
7	점탄	點灘	Patch
8	퇴	堆	Bank
9	탄, 천탄, 천퇴	灘, 淺灘, 淺瀨	Shoal
10	평탄	平灘	Flat
11	협악지	險惡地	Foul ground
12	보초	堡礁	Barrier reef
13	환초	環礁	Atoll
14	간출	干出	To dry

출처 : 朝鮮沿岸 水路誌(大正 9년 日本 水路部)

해저지형 속성의 표준화를 위하여 2008년 11월 IHO-IOC B-6에는 속성을 54개로 분류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속성지명의 명칭은 다르나 속성의 명칭을 적용할 경우에는, 중복해석 될 수 있는 것은 이중으로 표시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45종류로 분류하여 놓았다. 예를 들면 Table Mount(s)는 Guyot(s)를 참고토록 하고 Guyot(s)는 “정상(峰)이 평탄하고 평평한 해산(山)이다, 평정해산(山)이라고 불린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에는, 우리나라의 해저지형분류에 맞도록 초, 퇴, 협곡, 분지, 해산 등 42개로 분류하였다.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의 해저지명중에 항해에 위험한 장애물로 “SHOAL : 모래톱, REEF : 초(礁),

BANK : 퇴(堆)”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기술하였으나, 본 연구의 사례조사 결과 나타난 사용 예를 보면 실제 우리나라의 지형에 속성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모래톱(SHOAL) : 강이나 호소 또는 바다의 주변 바닥보다 수심이 얇은 불룩한 부분. 단단하지 않은 모래나 진흙 등이 쌓인 곳으로 항해에 위험한 지역이며, 암초나 산호 등 단단한 물질로 되어있는 초(reef)와 구별된다[15].”

“초(礁 REEF) : 해면 또는 해면 가까이에 위치한 바위 또는 경화된 물질로 항해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해저지형. 단단한 암초, 산호 등으로 되어있는 곳으로 항해할 때 위험한 부분이다. 진흙, 모래 등 단단하지 않은 물질로 되어있는 모래톱(Shoal)과 구별된다[15].”

“퇴(堆, BANK) : 비교적 수심이 얇고(흔히 200m 이하) 평탄한 정상부를 갖는 해저용기부. 흔히 대륙붕이나 섬 부근에 특징적으로 발달하고, 모래톱(Shoal)이나 초(reef)에 비해 약간 더 깊은 해저지형이기 때문에 안전항해가 가능하다. 해안주변에 발달하는 사퇴(sand ridge)와는 구별되며 항해에 지장을 주는 천퇴(sand bar)와도 구별된다 [15].”

지침서와 해양지명표준화 편람에 이와 같이 분류하여 놓았으나 실제 쓰이고 있는 해양지명에는 체계적으로 인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제수리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저지형에 관한 분류는 해양을 조사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분류한 것이다.

현재의 해양지명 분류의 해상지명은 1920년 당시 연안의 시계항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분류한 세암(洗岩), 암암(暗.岩), 험초(險礁), 수상암(水上岩), 탄(灘), 퇴(頰) 등을, 초(礁)와 퇴(堆)로 간략하게 표시하였으며, 해저지명은 해저의 지형을 과학적으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속성분류 사례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 표를 제시하였다. 다음 표는 해양수산부가 2004년 발간한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에서 분류한 해상지명이다.

표 3. 해양지명 표준편람의 해상지명 종류 및 분류

구분	한글	한문	영어	비고
바다	대양	大洋	ocean	
	바다	海	sea	
수로	해협	海峽	strait	sound 포함
	수도	水道	channel	passage, canal, gut, narrow 포함
암	암	岩	rock	바위
	암봉	岩棚	ledge	
만	해만	海灣	gulf	
	만	灣	bay	
	개만	開灣	bight	
	포	浦	creek	

출처 : 해양지명표준화편람, 2004.

표 4. 해상지명표준편람의 해저지명 분류 및 종류

구분	한글	한자	영문
1	기요	·	guyot, tablemount
2	단열대	斷裂帶	fracture zone
3	대륙 경계지	大陸境界地	borderland
4	대륙대	大陸帶	continental rise
5	대륙붕	大陸棚	shelf, continental shelf
6	대륙붕단	大陸棚斷	shelf-edge, shelf break
7	대륙 사면	大陸斜面	slope, continental slope
8	대륙 주변부	大陸周邊部	continental margin
9	모래톱	·	shoal
10	모우트	·	moat
11	실	·	sill
12	심해 구릉	深海丘陵	abyssal hill(s)
13	심해 평원	深海平原	abyssal plain
14	안부	鞍部;	saddle
15	에이프런	·	apron, archipelagic apron
16	중앙 열곡	中央裂谷	median valley
17	초	礁	reef
18	칼데라	·	caldera
19	해각	海脚	spur
20	해곡	海谷	trough, oceanic trough
21	해구	海溝	trench
22	해령	海嶺	oceanic ridge, oceanic rise

구분	한글	한자	영문
23	해봉	海峰	peak
24	해저 간극	海底間隙	passage, Gap
25	해저 계곡	海底溪谷	valley, submarine valley
26	해저곶	海底串	promontory
27	해저 구릉	海底丘陵	hill(s)
28	해저 놀	海底	knoll
29	해저 단구	海底段丘	submarine terrace
30	해저 대지	海底臺地	plateau
31	해저 분지	海底盆地	basin
32	해저산/해산	海底山/海山	seamount(s) 해저산 또는 해산
33	해저 산맥	海底山脈	seamount chain
34	해저 선상지	海底扇狀地	fan, cone
35	해저 수로	海底水路	seachannel
36	해저 융기부	海底隆起部	rise, ridge
37	해저 절벽	海底絶壁	escarpment, scarp
38	해저 제방	海底堤防	levee
39	해저혈	海底穴	hole
40	해저 협곡	海底峽谷	canyon, submarine canyon
41	해첨	海尖	pinnacle

#### 4. 해양지명 사례조사

본 연구의 사례조사는 우리나라에서 간행하여 사용 중에 있는 현행해도 중에서 항해용 해도 201종(동해안편 76종, 남해안편 65종, 서해안편 60종)으로 한정하였다.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항해용해도 중에서 축척 1:3만5천과 축척 1:5만, 축척 1:7만5천의 해도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해안선의 특성상 동해안은 주로 1:5만 축척의 해도가 사용되었고, 남쪽 해안과 서쪽 해안은 3가지 형태의 해도가 고르게 이용되었다. 따라서 조사에 사용된 해도는 전체 59종으로 동해안편 20종, 남해안편 20종, 서해안편 19종을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표 5참조).

본 연구에서는 해양지명의 사용실례에 관한 것에 초점을 두고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명이라 하더라도 해양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다에 접한 지역의 지명도 함께 조사하여 일부 인용하였다.

표 5. 해양지명 사례분석에 활용한 해도 목록

순서	해도번호	해도명	해도번호	해도명	해도번호	해도명
1	155	속초항부근	202	부산항에서가덕도	347	맹골군도에서가거도
2	133	수산단에서사천단	206	진해만 및부근	346	우이군도에서홍도
3	154	목호항부근	224A	거제도 동부	345	대흑산군도 및홍도
4	153	삼척항부근	224B	거제도서부및부근	329	장죽수도 및부근제도
5	152	임원항부근	209	육지도에서서금오열도	341	진도부근
6	151	죽변항에서후포항	236	진주만 및부근	342	나주군도 및부근
7	150	후포항에서강구항	256	광양만 및여자만	343	임자도 및부근 제도
8	132	월포만에서양포항	240	나로열도부근	321	목포항 부근
9	144	양포항에서울산항	213	소리도에서거문도	339	한국서안 제분도
10	142	울산항에서대변항	227	거금수도	344	안마군도 및위도부근
11	143	울릉도	257	득량만 및부근	336	상왕등도에서어청도
12	170	속초항에서사천단	232	거금도에서소안군도	337	어청도에서격렬비열도
13	171	사천단에서삼척항	221A	소안군도에서명량수도	322	천수만 부근
14	172	삼척항에서죽변항	221B	독거군도에서우이군도	334	격렬비열도에서 안도
15	173	죽변항부근	252	여서도에서제주항	307	이산만부근
16	174	죽산항에서월포만	248	추자군도에서제주항	306	안도에서인천항
17	175	포항항부근	253	제주도남동부	308	덕적도부근
18	176	울산항부근	254	제주도남서부	311	영종도에서용매도
19	178	울릉도부근	219	소안군도	315	대청군도
20	179	독도부근	220	장직로 및부근		

#### 4.1 해양지명 사례 분석

##### 4.1.1 해저지명

해저지명은 과학적인 조사에 따른 결과 분석으로 해저의 지형에 대한 속성지명의 정의가 가능한 것과 연안 가까이에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의 해저지명은 초(礁), 퇴(堆)

이외에도 서(嶼), 여(礪, 汝) 탄(灘), 추(湫), 퇴(瀨) 암(岩) 등 과거의 해양지명분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랫동안 사용하여온 해양지명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유엔지명위원회의 결의에 부합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해석을 잘못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이중으로 명명된 지명은 변경고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해양지명은 서(嶼)를 제외하고 모두 해저지명으로 속성을 분류하였으나 실제로는 해저지명과 해상지명의 구분 없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충실도를 위하여 해양지명 표준편람에서 분류한 속성지명을 근거로 하여 사례를 조사 분류하였다.

초(礁)의 명칭은 대체로 물속에 잠겨있는 항해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고르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암(岩)과 서(嶼)는 일부 지역에서 함께 사용되고 있다. 퇴(堆)는 우리나라 연안의 특성상 황해연안에서 사용빈도가 높으며, 서(嶼)는 육지지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해양지명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탄(灘)은 주로 덕적도 지역과 제주지역에서 사용빈도가 높으며, 퇴(瀨)는 용어를 잘못 해석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 4.1.1.1 초(礁)

초(礁)에 관한 분류는 당시의 항해능력은 현재에 비교할 수 없는 육안에 의한 시계항해이었으므로 눈으로 확인이 곤란한 해저의 형상에 따라 해수면 아래 겹겹 보이는 물체는 암암(暗岩), 초(礁)가 길게 연이어 있는 것은 초맥(礁脈), 수심이 얇은 지역의 암(岩)과 초(礁)는 수심으로 깊이를 나타내는 반심초(半尋礁) 또는 일심반초(一尋半礁)<sup>4)</sup>, 암초(岩礁)는 산호초인 환초(環礁), 보초(堡礁) 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생긴 물질의 성상에 따라 암(岩)질의 초(礁)라는 뜻의 암초(岩礁)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920년 이후 수로지를 보완하여 간행하면서 부터 속성 분류표를 신지 않고 이미 간행한 수로지의 내용만을 보완하였고 이 과정에서 암암(暗岩), 암초(岩礁)에 관한 정의에 혼돈을 일으켜 현재에는 각종 문헌에서 용어의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울진군 일원에서는 미역 등 해초가 자라는 바닷가

바위지역과 수중 암석지대를 “짬”이라 불렀다[36].

#### 4.1.1.2 퇴(堆)

퇴(堆)는 물속에 잠겨있는 모래언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퇴(沙堆), 천퇴(淺堆) 주(州) 등 여러 명칭으로 표기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퇴와 관련된 명칭은 오도남사퇴(砂堆), 대치마사퇴(砂堆), 각이사퇴(砂堆), 낙월사퇴(砂堆), 장안퇴(堆), 중앙천퇴(淺堆), 하별천퇴(淺堆), 반주(洲), 십이사주(沙州), 기린주(州), 소청주(州), 백령주(州),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해도번호 257번인 “득량만 및 부근 해도”에 표기되어있는 거금도 동쪽 해안의 “대니퇴(大尼堆)”라는 해저지명은 커다란 니질(뺨)의 퇴(堆)라는 뜻이나 지역의 형상이 해저지명으로 채용된 예로 볼 수 있다.

#### 4.1.1.3 탄(灘)

탄(灘)은 한자음의 뜻대로 얇은 여울 또는 항해에 장애가 되는 작은 암석지대를 이르는 용어이며, 퇴(瀨) 보다는 노출암 내지는 간출암 지역으로 덕적도 부근과, 제주지역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덕적도지역 굴업도 부근에는 연주탄, 선단탄, 장탄, 민어탄과 단탄이 있다.

제주도 서귀포와 가파도 사이에 있는 암석지대에 과부탄, 광포탄, 옹포탄, 도농탄이 있고 성산포인근 오조리에 난도탄, 반다탄이 있다.

탄(灘)이라는 해양지명이 덕적도지역과 제주지역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것은 이들 도서지역 주변 해역이 다른 지역보다 파도가 높아 항해에 어려움이 있는 해역으로 이들 도서(島嶼)지역 만의 특징적인 용어의 사용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제주지역은 현재에도 국어학적으로 고어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제주방언은, 9개의 단모음과 20개의 자음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중세어휘가 쓰이고 있고 한자어와 몽골 차용어 등이 제주방언에서만 두드러지는 어휘적 특징이라 한다[35].

#### 4.1.1.4 퇴(瀨)

퇴(瀨)는 한자음의 뜻에서 얇은 여울을 뜻하는 용어나 대표적으로 해석을 잘못하여 사용하고 있는 해양지명으로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에 “중퇴”라는 수심 4.4미터의 암석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그림 1

4) 반심초(半尋礁) : 일심(一尋)은 깊이를 나타내는 영어명칭 Fathom(페딤)의 일본식 표기로서 1.8m 즉 사람키 높이를 말한다.

참조).

이 중퇴는 본래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에 얇은 암석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라는 위험지역으로 표기를 한 것 이었으나 해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중퇴”라는 해양지명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대흑산도와 대흑산도 북쪽 호장도 사이에 “중퇴초(中瀨礁)”라는 수심 8.2미터 해저지질 암석의 얇은 해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

이 “중퇴초”는 위의 중퇴와 마찬가지로 대흑산도와 호장도 가운데 지역에 항해에 장애가 되는 암석 지대가 있으니 주의를 요하라는 위험지역으로 표기된 것이었으나, 2009년 12월 해양지명위원회에서 수중 암초를 뜻하는 “초(礁)”를 더하여 “중퇴초”라고 잘못 명명하여 고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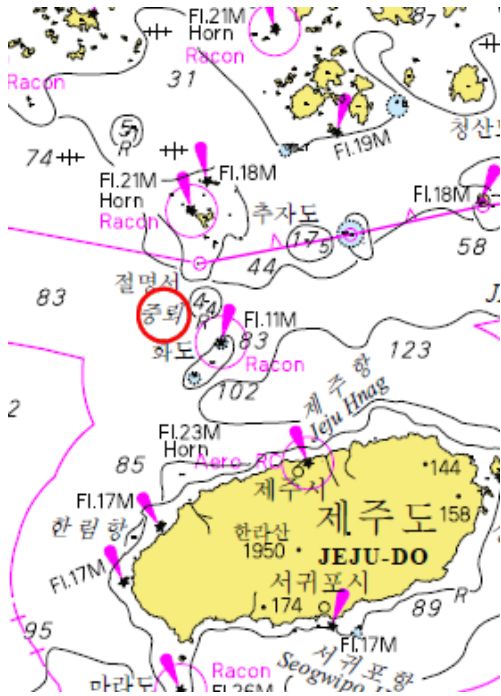


그림 1. 중퇴(해도NO 101, 대한민국 전도)

이외에도 현재 미륵도와 육지도 사이에 있는 연화도 북쪽과 남쪽에 마뢰(馬瀨)와 복뢰(福瀨)라는 해양지명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지명들은 해석의 오류로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해양지명이다.

지명 해석의 오류를 바로잡은 예로 해도번호 240 “나로열도부근 해도”의 낭도 남쪽에 부옥뢰(瀨)라는 초(礁)가 있었으나 2007년 해양지명위원회에서 부옥

초(礁)로 바로잡아 변경 고시하였다.

#### 4.1.2 해상지명

##### 4.1.2.1 서(嶼), 여(礪, 汝), 암(岩)

서(嶼)는 본래 육지지명으로서 작은 섬을 뜻하는 섬 서(嶼)로 표기되며 도(島)와 합쳐서 도서(島嶼)의 뜻으로 크고 작은 섬을 아울러 부르는 이름이었다. 서(嶼)는 작은 섬의 뜻으로 만조시에도 항상 물위에 노출되어있는 작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섬을 뜻하는 용어이나 주로 남쪽 해안지방에서 여(礪, 汝)와 함께 혼용이 되어 사용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에서처럼 “대흑산도와 북쪽 대둔도 사이의 종다리암(岩)”은 수심 -2.1미터의 암석지대로 속성 분류에 따른다면 암(岩)이 아닌 초(礁)로 속성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대둔도 서쪽 승서(嶼)는, 간조시 나타나는 2미터의 암석이므로 여(礪, 汝)로 변경,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조사된 사례에서와 같이 속성분류와는 다르게 해저지명과 해상지명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외 여러 지역에서도 해상과 해저를 구분하지 않고 초(礁), 암(岩), 서(嶼), 여(礪, 汝)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실제 明治 35년에 간행된 水路誌에는 외나로도 남쪽에 3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주인여, 곡두여, 탕근여의 경우 모두 여(汝)로 표기하고 있다. 속성은 서(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그림 2 참조).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해양지명위원회에서 고시한 우리나라 해양지명을 분석하면 만조시 물위로 보이는 간출암에 대하여는 거의 모두 “여(礪, 汝)”라는 속성지명으로 명명하였으나 해양지명 표준편람과 분류표에는 존재하지 않는 해양지명이다,

현재 嶼(서),와 礪, 汝(여), 礁(초), 岩(암)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면 향후 최소한 해상지명과 해저지명에 대한 속성분류 만이라도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暗礁, 岩礁(암초), 礪, 汝(여)에 대한 새로운 표준속성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양지명표준화 편람에는 정의 되어있지 않으나 <표 1>의 조선연안 수로지의 해상지명 속성 분류표에 제시되어있는 묘지(錨地)는 어감상 좋지 않아 현재는 박지(泊地) 또는 정박지(碇泊地)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평택항 일대는 과거 아산묘지(牙山 錨地)로 선박의 임시 묘박지를 뜻하는 명칭으로 불리우다 1920년 이후 현재 지명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제주도 서쪽에 비양도묘지(飛揚島錨地)등 과거의 해양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해상지명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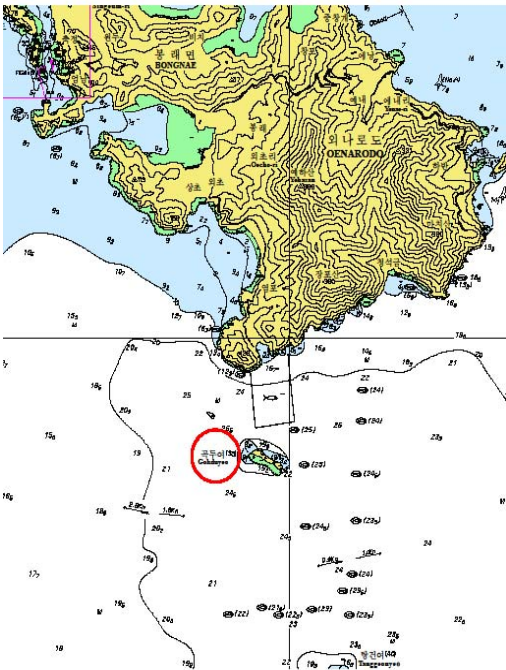


그림 2. 곡두여(나로열도 부근 해도NO 240 : 국립해양조사원)

4.2 해양과 인접지역의 지명 조사 및 분석

우리나라의 해양지명은 과거에는 포(浦), 곳(串), 진(津), 만(灣), 항(港 : 부산항, 인천항 정도)이 대부분이었으나 항해술의 발달과 문명의 발달에 따라 소규모의 포(浦)와 진(津)이 “항(港)”으로 개발되었다.

바다와 인접한 지역의 해안가 마을의 지명에 단(端), 말(末), 추(湫), 갯(岬), 곳(串), 각(角)등이 있다.串(곳)은 육지가 튀어나온 바닷가 지형을 특징적으로 부르는 이름으로 크기가 큰 것은 “반도”로 부르며, 해양지명은 아니다.

강원도쪽 해안과 경북, 경남 일부해안의 지명은 단(端)과 말(末)(양양 : 수산단, 사천 : 사천단, 장호 :

장호말, 부산 : 승두말, 고성 : 다랑말)이 많이 쓰이고 있으나 전남과 충남해안에서는 각(角)(해남 : 해남각, 보길도 : 파장각, 고흥 : 용등각, 한진 : 한진각, 평택 : 노미각) 제주도와 강화도지역은 곳(串) (표선리 : 개민포곳, 모슬포 : 사구곳, 석모도 : 조상곳, 강화도 : 철곳), 두(頭)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자월도 : 월암두, 소야도 : 대금두)에서, 다른 지명보다 출연 빈도가 높다 이는 지역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본래 각(角)은 표-1에서 영어명칭 Point 즉 육지지역의 뾰족하게 튀어나온 끝을 지칭하는 해양지명이었으나 이제는 지명으로 굳어졌다.

4.3 외래지명의 변경 사례조사 및 분석

옹진군 오산항 인근에 있는 “큐우젼초(礁)”는 지역 방언으로 “구잠(잠 : 동해안 일부지역의 방언으로 바닷가 해안선 부근의 바위 또는 미역채취 등이 가능한 얕은 지역의 수중 바위)이라 부르던 것을 러시아 함대가 이 지역을 조사하여 제작한 해도에 러시아어로 한글 소리와 비슷하게 “큐우젼”으로 표기하였다. 후일 해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큐우젼”에 해당지명인 초(礁)를 덧붙여서 “큐우젼초”가 되었으나 해양지명위원회가 2005년 “거북초(礁)로 명명하는 우를 범하였다.

이 지명은 지역어민들이 오랫동안 “구잠”으로 불러 왔으므로 유엔지명위원회 지명부여 원칙에 따라 “구잠”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옹진군 죽변항 앞에 있는 호부라무지에미초는 “가” 초(礁)로 변경 고시하였다.

동해시 망상동 앞 해상 “말채이초”는 마루초(礁)로, 변경 고시하고, 전남 완도 인근의 “메에루암”은 “왜몰여”로 변경 고시하였다가 2007년 “왜몰초(礁)”로 다시 변경하여 고시하였는데, 이 지명 역시 “메에루”는 “돔”이라는 생선을 표시하는 일본말인데 과거 이 초(礁)에서는 “돔”이 많이 잡혔을 것으로 사료되는 이름이다. 이들 사례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장조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전남 가거도 밖에 있는 “일항초”는 “가거초(礁)”로 진해 앞바다 “찬넬초”는 “돛헌여”로 “쿠레사초”는 “딴초(礁)”로 변경 고시하는등 해양지명의 표준화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30, 31, 32, 33, 34].

5) 두(頭)는 1907년 속성 분류 하였으나, 1920년 부터는 적용하지 않았음.



사례조사 결과 현재에도 외래지명이 사용되고 있다. 경상남도 거제도 북쪽 가조도 부근과 전라남도 해남군 보길도 서남쪽에 “출운초(出雲礁)”라는 동명 이초(礁)가 있다.

특히 보길도 남쪽의 “출운초(出雲礁)”는 독일 군함 Nautilus호가 발견하였으며 일본의 기선 출운환(出雲丸)이 충돌 침몰하여 명명한 초(礁)의 이름이다.

진해만의 “도구라스암”도 변경고시 되어야 할 해양지명이다.

#### 4.4 표준화 방안

우리나라 연안에 대한 해양지명을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嶼)는 한자사전에서 작은 섬을 나타내는 뜻으로 풀이 하고 있다. 해양지명위원회에서도 육상지명으로 분류하고 해양지명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도 또는 항로지 등 해양관련 문헌에는 무수하게 많은 서(嶼)가 해양지명으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지명으로 재분류하고 정의 하여야 한다.

2. 2007년 해양지명위원회에서는 간조시 수면위로 들어나는 암석(岩石)에 대하여, 여(礪, 汝)로 고시하였는데, 여(礪, 汝)는 속성분류표에 없는 지명이므로 해양지명으로 속성을 재분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3. 암초(暗礁, 岩礁)는 환초(環礁), 보초(堡礁) 등 산호초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속성을 잘못 이해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재분류 하여야 한다.

4. 퇴(瀨)는 항로상에 얇은 여울이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뜻의 용어로 사용한 것이나, 용어의 뜻을 잘못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퇴(瀨)의 형상은 초(礁)이므로 초(礁)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5. 외래지명을 변경고시 하는 경우 현지인이 부르고 있는 이름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면, 현지 지명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6. 동명 이초(異礁)의 경우 각각의 해양지명을 제정 명명하여야 한다.

7.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된 경우 의의에 맞는 올바른 해양지명으로 변경 고시하여야 한다.

## 5. 결론 및 제언

해양지명위원회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21개의 해양지명을 발굴 고시하였다. 이중에서 정비대상이 되는 것은 188개로 약 44.7%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이미 고시한 해양지명중 속성분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여(礪, 汝)와 속성을 잘못 판단하여 고시한 중퇴초(中瀨礁) 등 고시내용에 관하여 새로운 속성을 부여하고 변경 고시하여야 한다.

2005년과 2006년 해양지명의 고시사항을 분석하면 해상지명과 해저지명의 명명에 일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2007년에 礁(초),와 礪, 汝(여)를 구분하여 변경 또는 정정 고시를 하였다.

2007년 해저지형에 관한 분류는 갈매기해저구릉이 갈매기초로, 새 해저구릉이 새택堆(퇴)로 변경 고시하는등 표준화에 가깝도록 노력하였다.

2008년은 제주도에 대한 조사였으며, 2009년 흑산도 일원에 대한 해양지명조사 결과는, 현장조사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고유지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속성지명은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시하였다.

해저지명은 과학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으나 해안에 인접한 해저 지명과 해상지명에 대하여는 속성의 분류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명명되어 오랫동안 사용하여 해양지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조그만 암석에 대하여 서(嶼)라고 부르는 것과 여(礪, 汝), 또는 암(岩) 이라 부르는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일관된 속성지명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해양표준편람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사례중심의 지명 검토와 표준화방안에 대한 실질적 적용은 행정적으로 지침의 개정으로 완성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지명체계에 대한 논의자체도 활성화되어 조정하고 정비되어가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위상과 해상영토의 확장을 위하여 태평양 공해상의 해저지형에 자국의 이름을 명명하는 등 해양지명의 확산과 표준화에 많은 노력에 걸맞은 국내 해양지명의 표준화 및 일관성의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1] 日本 水路部, 明治35年, 朝鮮水路誌 追補 第 1.
- [2] 日本 水路部, 明治40年, 朝鮮水路誌 第 2 改版.
- [3] 日本 水路部 大正 9年. 日本水路誌 第10券 上, 朝鮮 東岸 及 南岸.
- [4] 日本 水路部 大正 9年. 日本水路誌 第10券 下, 朝鮮 西岸.
- [5] 日本 水路部, 昭和 20年. 簡易水路誌 朝鮮沿岸, 第1券 朝鮮 東岸 及 南岸.
- [6] 日本 水路部, 昭和 22年. 簡易水路誌 朝鮮沿岸, 第2券 朝鮮 西岸.
- [7] 海上保安廳, 昭和 27年. 朝鮮南東岸水路誌
- [8] 海軍本部水路官室, 4285年. 韓國沿岸水路誌, 第1券, 東岸 南岸.
- [9] 海軍本部水路官室, 4285年. 韓國沿岸水路誌, 第2券, 西岸 西海諸島.
- [10] 海軍水路局, 1961, 韓國沿岸水路誌 第3券 西岸 및 西海諸島,
- [11] 水路局 1964, 韓國沿岸水路誌, 第1券, 東海岸·東海 諸島.
- [12] The United Kingdom Hydrographic Office, Eighth, Edition 2008. Admiralty Sailing Directions, South and East Coasts of Korea, East Coast of Siberia and Sea of Okhotsk Pilot.
- [13] The United Kingdom Hydrographic Office, Seventh, Edition 2009. Admiralty Sailing Directions, China Sea Pilot V, III.
- [14] 국립해양조사원, 1955, 2010, 해도 번호 101, 대한 민국전도
- [15] 해양수산부 해양지명위원회, 2004, 해양지명 표준 화 편람, pp 66~75.
- [16] 국립해양조사원, 2005, “동해중부 해양지명 조사 보고서”. pp 28~31.
- [17] 국립해양조사원, 2006, “동해 남부, 남해 동부 및 제주도 남부 해역 해양지명 조사보고서”.
- [18] 국립해양조사원, 2007, 남해 중부(연안), “황해 및 제주도 부근해양지명 조사보고서”.
- [19] 국립해양조사원, 2008, “전남 고흥-진도군 연안 및 제주 추자도 부근 해양지명 조사보고서”.
- [20] 국립해양조사원, 2009, “황해 남부(전남 신안군~ 무안군) 연안 해역 해양지명 조사보고서”.
- [21] 국립해양조사원, 2010, “동해안항로지”.
- [22] 국립해양조사원, 2008, “동해안항로지”.
- [23] 국립해양조사원, 2009, “동해안항로지”.
- [24] 국립해양조사원, 2010, 해도 번호 155, 속초항 부 근의 57종.
- [25] 권삼문, 2001, “동해안어촌의 민속적 이해”, 민속 원, pp 30~39.
- [26] 김계현 외, 2007, “GIS를 이용한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자원정보시스템의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 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vol. 9 , no.1, pp. 55 ~66.
- [27] 임영태 2005, “해양지명의 표준화와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 [28] 최윤수 외, 2003, “해양지명의 전문성과 표준화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vol. 11, no.3, pp. 41~46.
- [29] 홍상기 외, 2004, “해양 지리정보 피쳐 카탈로그 작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 문지, vol. 6, no.4, pp.101~117.
- [30] 해양지명위원회, 2005, 해양지명고시, 제28호.
- [31] 해양지명위원회, 2006, 해양지명고시, 106호.
- [32] 해양지명위원회, 2007, 해양지명고시, 83호.
- [33] 해양지명위원회, 2008, 해양지명고시, 705호.
- [34] 해양지명위원회, 2009, 해양지명고시, 13호, 1313 호.
- [35] 제주도 홈페이지 제주방언,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contents\\_id=GC00702008](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contents_id=GC00702008)
- [36] 울진군 홈페이지, <http://uljin.grandculture.net/Contents/Index>

---

논문접수 : 2011.10.09

수정일 : 2011.12.02

심사완료 : 2011.12.05



임 영 태

2002년 방송통신대 농학과 농학사  
2004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2005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원 지적정보학과 공학석사  
2008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공간정

보공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는 해양지명, 수로측량



윤 하 수

2007년 서울시립대학교 지적정보학 공  
학사  
2009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공간정  
보공학 공학석사  
2011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공간정

보공학 박사수료

관심분야는 측량 및 측지, GNSS, 지적



최 윤 수

1992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1994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2008년~현재 한국공간정보학회 부회  
장

2001년~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

보공학과 정교수

관심분야는 공간정보 정책, LBS, 해양지명